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대에 기여

박 경 옥(충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최근의 지역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고 지역에 시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볼 수 있다. 이경희교수의 주제발표는 Bottler의 개념을 인용하여 개인적인 생활의 영위를 위해 도움을 받는 조직으로 사적인 개별가구, 비영리 서비스 제공조직, 영리조직, 공공조직을 들어서 최근에 나타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활동사례들에서 이들 조직들이 주민, 외부 비영리조직, 시민단체, 행정조직으로 대응되면서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음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을 체계화하였다.

많은 사례들은 개인과 소수 인원의 희생과 노력으로 활동이 시작되어 비영리 조직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정착되어 가며, 이런 활동들은 집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면서도 사회 전체적으로 생활의 질을 높여 가는 일이다. 공간적인 시설의 적용면에서는 주택지를 개발하면서 초기기획단계에서부터 코하우징의 개발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국가의 제도적인 틀에서 시행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도입하므로써 실현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결론 부분에 제시된 내용인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대안들을 전문가의 역할과 관련지어 본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일반인들에 대한 공동체적 생활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도시생활에서 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며, 어떤 일들로 시작해야 할지, 다수의 의견조정을 위한 회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배워가야 할 것이다. 사실상 이런 내용들은 도시에 아파트단지가 늘어나면서 공동주택관리를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에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주민 전체가 참여하게 되는 총회가 유명무실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형식적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몇몇 주도적인 사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수 아파트의 현실로 보여진다. 다행히 1998년 이래의 IMF의 구제금융의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비 절약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난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은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과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의견조정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과 절차(생활관리)에 대해 배우기를 원했으며 이것을 교육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요구하게 되었다. 부분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가정관리 전공자들이 개인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 또는 생활과학연구소를 통해 공동체 생활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강좌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민들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야만 지금까지 지엽적으로 일어났던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운동들이 확산 될 수 있고, 소수의 의식 있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지역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동참함으로써 활동의 조직화,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리더도 양성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는 고령사회로 가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여진다.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적인 시설의 설치 운영은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는 주민 전체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지원하지만 특히 노인에게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커뮤니티센터에서는 건강한 노인들이 다른 연령층과 교류할 수 있고, 생활 원조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커뮤니티센터가 아직은 주택지의 시설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를 커뮤니티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제시된 관리·행정, 정보·상담, 건강·운동, 여가·문화, 보육·교육 중 이용면적과 지역사회필요도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고령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생활원조의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공간적인 시설 배치에 중점을 둔 ‘커뮤니티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특히 1995년 1월의 고베 대지진 발생이 커뮤니티개발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1998년 3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성립되었다. 커뮤니티개발은 지역사회를 개발 또는 재생하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복지, 주택,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시민사업, 자연환경보전의 영역에 NPO(Non Profit Organization)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커뮤니티개발에 미국, 유럽, 일본 등지의 민간 비영리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선례를 통하여 우리 정부의 NPO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입법과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